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天上白玉京 紫清殿(자청전)이 7려시니 天門 九萬里를 꿈이라도 갈동말동 초라리 식여지여 億萬 번 變化하여 南山 늦은 봄의 杜鵑(두견)의 녀시 되어 梨花 가디 우희 밤나를 못 올거든 三清洞裡의 점은 한 널구름 되어 3람의 흘리 3라 紫微宮의 3라 올라 玉皇 香案前의 咫尺(지척)의 나아 안자 胸中의 싸힌 말슴 쓸커시 스로리라 어와, 이 내 몸이 天地間의 느저 나니 黃河水 물다만는 楚客의 後身인가 傷心도 7이 업고 賈太傅(가태전)의 녀시런가 한숨은 무스 일고 荊江(형강)은 故鄉이라 十年을 流落하니 白鷗(백구)와 버디 되어 흙의 놀자 3엿더니 어루는 듯 괴는 듯 3의 업슨 3을 만나 金華省 白玉堂의 꿈이조차 향기롭다 五色 실 니음 절너 3의 옷슬 못 3야도 바다7튼 3의 恩을 秋毫(추호)나 갑프리라 白玉7튼 이 내 3음 3 위3여 직히더니 長安 어제 밤의 무서리 섯거 치니 日暮 修竹의 翠袖도 冷薄3샤 幽蘭을 것거 쥐고 3 겨신 디 3라보니 弱水 7리진디 구름 길이 머흐러라 다 서근 둥기 얼굴 첫맛도 채 몰나서 憔悴(초취)3 이 얼굴이 3 그리 이러컨자 千層浪 3가온대 百尺竿의 올라더니 無端3 羊角風이 宦海中の 나리나니 億萬丈 소희 싸져 하늘 뜰홀 모를노다 魯나라 흐린 술희 邯鄲이 무슴 罪며 秦人이 취3 잔의 越人이 우음 닳고 城門 모딘 불의 玉석이 흙3 3니 쓸 압희 심은 蘭이 半이나 이우레라 梧桐(오동) 점은 비의 외기력이 우리 제 關山萬里 길이 3의 암암 불피는 듯 靑蓮詩 고쳐 고 팔도 한을 3쳐 보니 華山의 우는 새야 離別(이별)도 괴로와라 望夫山前의 夕陽이 거의로다 기도로그 3라다가 眼力(안력)이 盡3턴가 落花 말이 업고 碧窓(벽창)이 어두으니 입 노른 3기 새들 어이도 그리 건자 八月秋風이 3집을 거두우니 3의 3인 알히 水火를 못 면토다 生離死別을 3 몸의 혼자 맛다 三千丈 白髮(백발)이 一夜의 기도 길샤 風波의 현 비 3고 흙3 노던 저 뉴덜아 江天 지는 3의 舟집이나 無恙3가 밀거니 허거니 3여堆를 겨요 디나 萬里鵬程을 멀니곰 건주더니 3람의 다 3치여 黑龍江의 떠러진 듯 天地 7이 업고 魚雁이 無情3니 玉7튼 面目을 그리다가 말년지고 梅花나 보내고져 驛路를 3라보니 玉樞明月을 녀 보던 3 비친 듯 陽春을 언제 불고 눈비를 혼자 마자 碧海 너븐 7의 녀시조차 3터지니 내의 긴 소매를 늘 위3여 적시 3고 太上 칠위분이 玉眞君子 命이시니 天上 南樓의 笙笛을 울니시며 地下 北風의 死命을 벗기실가 죽기도 命이요 살기도 하3리니 陳蔡之厄을 3인도 못 면3며 유예非罪를 君子인들 어이 3리 五月飛霜(오월비상)이 눈물로 어리3 듯 三年大旱도 冤氣로 니뢰도다 楚囚南冠(초인남관)이 古今의 3돌이며 白髮黃裳(백발황상)의 셔룬 일도 하고 만타 乾坤이 病이 드러 混沌

이 죽은 後의 하늘이 沈吟3 듯 貫索星이 비취는 듯 孤情依國의 冤憤(원분)만 싸3시니 초라리 瞎馬7치 눈 3고 지내고져 蒼蒼漠漠3야 못 미들3 造化이다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3가 盜跖도 성히 놀고 伯夷도 餓死3니 東陵이 3픈 작가 首陽이 3른 작가 南華 三十篇의 議論도 하도 할샤 南柯의 디난 3을 3각거든 슬므어라 故國松楸를 3의 가 문져 보고 先人 丘墓를 3 後의 3각3니 九曲肝腸이 굽의굽의 그쳐세라 瘴海陰雲의 白晝의 3터디니 湖南 어니 고디 鬼(귀역)의 淵藪(연수)런디 魑魅魍魎이 쓸커디 저른 7의 白玉은 무스 일로 靑蠅의 3시 되고 北風의 혼자 서서 7 업시 우는 3을 하를 7튼 우리 3이 전혀 아니 슬피시니 木蘭秋菊에 香氣로운 타시런가 婕如 昭君이 薄命3 몸이런가 君恩이 3이 되어 3러가도 자 3 업고 玉顏이 3이로되 눈물 7려 못 볼로다 이 몸이 3아져도 玉皇上帝 處분이요 이 몸이 식여져도 玉皇上帝 處분이라 노 가디고 식여지여 魂魄(혼백)조차 3터지고 空山 髑髏7치 3자 업시 구니다가 崑崙山(곤륜산) 第一峯의 萬丈松이 되어 이서 3람비 쓰린 소리 3의 귀에 들니기나 輪回 萬劫3여 金剛山 鶴이 되어 一萬二千峯의 3음3 소사 올라 7을 들 불근 밤의 두어 소리 슬피 우리 3의 귀의 들리기도 玉皇上帝 處분이다 恨이 쓸희 되고 눈물로 가디 삼아 3의 집 창 3기 외나모 梅花되어 雪中의 혼자 피여 枕邊(침변)의 이위3 듯 月中疎影이 3의 옷의 빗취어든 어엿3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가 東風이 有情3여 暗香을 불어 올려 高潔(고결)3 이 내 3계 竹林이나 부치고져 빈 낙대 빗기 들고 빈 비를 혼자 3키워 白溝 건네 저어 乾德宮(건덕궁)의 가고지고 그러도 3 3음은 魏闕(위궐)의 달녀 이서 니 무든 누역 속의 3 향3 3을 3여 一片 長安을 日下의 3라보고 외오 3겨 올히 3겨 이 몸의 타실년가 이 몸이 전혀 몰라 天道 漠漠(막막)3니 물을 길이 전혀 업다 伏羲氏(복희씨) 六十四卦 天地萬物 상긴 3을 周公을 3의 3와 3시이 못3고져 하늘이 3고 3하 말업시 3흔 3을 구름 우희 3는 새야 네 아니 아3터냐 어와 이 내 가3 3이 되고 돌이 되어 어디 어디 사3시며 비 되고 3이 되어 어디 어디 우리 고 아모나 이 내 3 알 니 3 이시면 百歲交遊 萬世相感3리라

0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비애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② 대조적 시어를 병치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계절의 변화에 따른 경관의 묘사를 통해 화자의 정서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타인에게 호소하고 있다.

02

윗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상의 공간에서 소외된 자신의 처지를 역사적 인물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변치 않는 마음을 지키려 노력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자신의 불행이 타인의 탓이 아닌 스스로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 ④ 현실의 고난을 운명론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임을 향한 일편단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 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는 답답함을 자연물이나 초월적 존재에게 묻고 있다.

03

윗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옥경'과 '자청전'은 화자가 과거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격리된 공간을 의미한다.
- ② '무서리'와 '양각풍'은 화자에게 닥친 시련이나 정치적 시련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 ③ '약수'와 '구름'은 임과 화자 사이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심화하는 장애물이다.
- ④ '청蠅(청승)'은 화자의 결백함을 훼손하고 임의 총명을 가리는 부정적 존재를 비유한다.
- ⑤ '만장송'과 '학'은 현실의 고통을 잊고 자연에 귀의하려는 화자의 은거 의지를 드러낸다.

04

윗글의 구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 서근 둥글 얼굴'은 자신의 외모가 비천해진 것에 대한 화자의 자괴감을 드러낸다.
- ② '성문 모딘 불의 玉석이 흙식 트니'는 재앙이 닥쳐 선과 악의 구별 없이 모두 피해를 입는 상황을 개탄한 것이다.
- ③ '오월비상이 눈물로 어리느 듯'은 자연 현상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슬픔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한다.
- ④ '하늘을 원망할가'는 자신의 불행이 하늘의 뜻임을 깨닫고 모든 원망을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 ⑤ '남카의 디난 쏜'은 임과 함께했던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됨을 보여준다.

0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작가가 광해군 때 당쟁으로 인해 유배된 처지에서 지은 가사이다. 화자는 자신을 천상에서 쫓겨난 선관(또는 선녀)으로 설정하고 임금을 옥황상제로 설정하는 '천상계-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를 취한다. 이는 충신연주지사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자신의 억울함(원분)을 호소하고 임에 대한 변함 없는 충절을 다짐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자연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거나 분신을 통해 임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는 유배객의 절박한 심리를 잘 보여준다.

- ① '백옥경'에서 쫓겨나 '십 년을 유락'하는 화자의 모습은 작가의 장기적인 유배 생활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② '무단헌 양각풍'이 '환해중'에 내린다는 표현은 작가가 겪은 정치적 풍파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겠군.
- ③ '매화'를 꺾어 임에게 보내고 싶어 하는 행위는 자신의 곁절한 충심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겠군.
- ④ '혼백조차 흩어지고' 죽어서 '만장송'이 되겠다는 것은 현실의 고통을 죽음으로 회피하려는 소극적 태도이겠군.
- ⑤ '하늘 같은 우리 님'이 '전혀 아니 살피'시는 상황은 임금의 무심함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겠군.

06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점차 희망적으로 변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임에 대한 원망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③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 ④ 자신의 처지를 자연 현상에 빗대어 내면의 억울함과 충절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서술을 통해 사회적 지위 회복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07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서 울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투영한 대상이다.
- ② ㉡: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재회에 대한 화자의 불안감을 고조시킨다.
- ③ ㉢: 시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처한 절망적 상황과 기다림의 한계를 시각화하고 있다.
- ④ ㉣: 화자의 외양 변화를 과장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고통의 깊이를 강조한다.
- ⑤ ㉥: 임의 총명이 회복되어 화자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는 긍정적 징조이다.

0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임과 함께했던 '금화성 백옥당'에서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자신의 억울함이 '오월에 서리가 내리는 것'과 같다고 느끼고 있다.
- ③ 화자는 '도척'과 '백이'의 사례를 통해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회의를 느낀다.
- ④ 화자는 임의 은혜가 물처럼 흘러가 자취가 없어진 것에 대해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 ⑤ 화자는 '북희씨의 육십사과'를 통해 천지만물이 생성된 근원적 이치를 묻고자 한다.

09

윗글의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부 세계의 묘사에서 화자의 내면 심리로 시선이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된다.
- ② 임에 대한 원망이 점차 심화되어 결국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로 결말을 맺는다.
- ③ 현실의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과 임에 대한 충절을 다짐하는 부분이 교차하며 반복된다.
- ④ 자연물과의 대화를 통해 화자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타인과의 유대감을 회복하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신분적 위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0

윗글의 화자가 '하늘(옥황상제)'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모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순응
- ②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무심함에 대한 분노와 이를 극복하려는 도전 정신
- ③ 불합리한 현실을 방관하는 신적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과 냉소적 태도
- ④ 과거의 영광을 되돌려줄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대와 그에 따른 인내의 자세
- 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 앞에 느끼는 무력감과 체념적 수용

11

윗글의 ㉠~㉥ 중 그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2

윗글의 '魯나라 흐린 술희 邯鄲이 무슨 罪며 / 秦人이 취한 趙人이 우음 타고'에 담긴 화자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자신의 불행이 과거 조상들의 업보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깨닫고 이를 수용하고 있다.
- ③ 세상의 이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 ④ 작은 실수가 견잡을 수 없는 큰 재앙으로 번지는 정치 현실의 냉혹함을 경계하고 있다.
- ⑤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인간관계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다.

13

다음은 정철의 <사미인곡> 중 일부이다.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찰라리 식여디여 뱀나뱀 되오리라. / 꽃나모 가지마다 간 디
죽죽 안니다가 / 향 므든 놀개로 님의 옷의 움으리라. / 님이
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좇으려 하노라.

- ① 윗글의 '매화'와 <보기>의 '뱀나뱀'은 모두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 ② 윗글과 <보기> 모두 '식여디여(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겠다는 설정을 통해 충절을 강조한다.
- ③ 윗글의 '님의 귀에 들리기'를 바라는 태도는 <보기>의 '내 님 좇으려' 하는 태도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여준다.
- ④ 윗글의 '어엿븐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가'는 <보기>의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에 비해 임의 반응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 ⑤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임의 곁에 머물고자 하는 소극적 연모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14

윗글의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속적 명예를 버리고 자연과 하나 되는 몰아일체의 경지
- ②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도덕적 완성을 이루려는 수양의 자세
- ③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임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연모
- ④ 당쟁의 허무함을 깨닫고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탈속적 의지
- ⑤ 고통받는 민중의 삶을 살피고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려는 애민 정신

15

윗글의 '乾坤이 病이 드러 混沌이 죽은 後의'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 자신의 육체적 질병이 깊어져 생명이 위독한 상황임을 암시한다.
- ②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어 대재앙이 닥칠 것임을 예고하는 복선이다.
- ③ 올바른 도리가 사라지고 혼란에 빠진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 ④ 임과 이별한 후 화자가 느끼는 정신적 공허함과 허무주의를 극대화한다.
- 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의 진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01 표현상 특징 파악

유사어혼동

정답: ①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비애감을 표출하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 전체에 흐르는 영탄적 어조와 그 정서적 효과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① '어와', '슬프어라', '기도 길사' 등 영탄적 어조를 통해 임과 이별한 화자의 깊은 슬픔과 원통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자연물(매화, 학 등)은 임에 대한 충절의 매개체일 뿐, 인간과의 조화로운 삶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현실의 고통은 드러나지만 이를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극복 의지를 부각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④ 계절적 배경(늦은 봄, 팔월 추풍 등)이 나타나나, 그것이 경관 묘사를 통한 정서 '변화'를 주도하는 구조는 아니다.
 ⑤ 설의적 표현은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강조할 뿐, 타인에게 정당성을 호소하는 목적이 아니다.

02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조건누락

정답: ③ 자신의 불행이 타인의 탓이 아닌 스스로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출제의도]

화자의 자기 인식과 상황에 대한 태도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③ 화자는 '외오 굿겨 올히 굿겨 이 몸의 타실년가 / 이 몸이 전혀 몰라'라고 하여 자신의 잘못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지, 명확히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며 자책하는 태도는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초객(굴원), 가태전(가생) 등 유배된 충신들에 자신을 빗대고 있다.
 ② '바다 7튼 님의 은혜 秋毫나 갑프리라', '白玉 7튼 이 내 무음 님 위하여 직희더니'에서 확인된다.
 ④ '죽기도 命이요 살기도 하느리니' 등에서 운명론적 수용이 나타나며, 결미까지 임을 향한 마음이 이어진다.
 ⑤ '구름 우희 노는 새야 네 아니 아돏더냐', '주공을 꿈의 뵈와 주시이 못줍고져' 등에서 확인된다.

03 시어의 상징적 의미

개념혼동

정답: ⑤ '만장송'과 '학'은 현실의 고통을 잊고 자연에 귀의하려는 화자의 은거 의지를 드러낸다.

[출제의도]

주요 시어의 문맥적 의미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⑤ '만장송'과 '학'은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가고 싶어 하거나 임에게 자신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화자의 분신으로, 은거 의지가 아니라 임을 향한 간절한 충절의 지속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천상계의 공간으로 임이 계신 곳이자 화자가 쫓겨난 곳이다.
 ② 화자의 처지를 초월하게 만들거나 '억만장 소'에 빠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③ 임에게 다가가는 길을 가로막는 전형적인 장애물로 쓰였다.
 ④ '백옥'이 '청승의 깃'이 되었다는 것은 간신에 의해 충신이 모함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04 구절의 문맥적 의미

인과역전

정답: ② '성문 모딘 불의 玉석이 흙식 투니'는 재앙이 닥쳐선과 악의 구별 없이 모두 피해를 입는 상황을 개탄한 것이다.

[출제의도]

고사 성어나 관용적 표현이 문맥 속에서 지니는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성문지화(城門之火)' 고사를 인용하여, 정치적 격변이나 모함으로 인해 무고한 자신(옥)까지 피해(석과 함께 탐)를 입게 된 상황을 비판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다 썩은 닭의 얼굴'은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초체해진 자신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지, 신분의 비천함에 대한 자괴감이 아니다.
 ③ '오월비상'은 억울한 사람의 원한이 깊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슬픔의 심화를 뜻한다.
 ④ 설의법을 통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처지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원망을 완전히 거둔 해탈의 상태가 아니다.
 ⑤ '남가일몽'은 인생의 허무함을 뜻하며, 이를 생각하면 '슬프고 밍다(슬프어라)'고 했으므로 고통의 원인이 된다.

05 종합적 감상

맥락이탈

정답: ④ '혼백조차 흠어지고' 죽어서 '만장송'이 되겠다는 것은 현실의 고통을 죽음으로 회피하려는 소극적 태도이겠군.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의 내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감상한다.

[정답 풀이]

- ④ 죽어서 '만장송'이나 '학'이 되겠다는 것은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머물며 자신의 충절을 알리고 싶어 하는 간절함의 표현이지, 현실을 회피하려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분신을 통해 임에게 다가가려는 시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백옥경'은 궁궐, '유락'은 유배 생활을 의미한다.
- ② '환해(벼슬길)'에 붙어닥친 '양각풍(회오리바람)'은 당쟁과 탄핵을 상징한다.
- ③ '매화'는 전통적으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며, 이를 임에게 보내는 것은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려는 행위이다.
- ⑤ 임을 '하늘'에 비유하면서도 자신을 살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원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06 서술 및 담화 방식 분석

부분→전체

정답: ④ 자신의 처지를 자연 현상에 빗대어 내면의 억울함과 충절을 형상화하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의 전반적인 전개 방식과 서술 전략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④ '무서리', '양각풍', '오월비상', '매화', '만장송' 등 다양한 자연 현상과 사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고통스러운 처지와 임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공간 이동(유배지로의 이동)은 나타나지만 정서는 일관되게 슬프고 억울하다.
- ② 과거(임과 함께함)와 현재(이별)의 대비는 나타나지만, 그것이 임을 '원망'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용은 아니다.
- ③ 질문(설의)은 나타나나 답변이 이어지는 대화체 형식이 아니며, 논리적 입증보다는 감정적 호소에 가깝다.
- ⑤ 화자는 임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뿐, 일반적인 사회적 지위 회복 욕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07 밑줄 친 부분의 기능 파악

개념혼동

정답: ⑤ ㉔: 임의 충명이 회복되어 화자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는 긍정적 징조이다.

[출제의도]

특정 구절의 표현 기법과 문맥적 기능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⑤ ㉔는 화자의 분신인 '매화'의 그림자가 임에게 닿는 장면으로, 죽어서라도 임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화자의 애틋한 충절을 드러내는 것이지, 상황의 호전이나 억울함의 해소를 암시하는 객관적 징조는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두견새는 전통적으로 한(恨)의 상징으로, 임 곁에 가고픈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 ② 약수는 배가 뜰 수 없는 전설 속의 강으로, 극복하기 힘든 단절감을 상징한다.
- ③ '석양'은 하강적 이미지로, 기다림에 지친 화자의 심경과 연결된다.
- ④ '삼전장 백발'은 근심으로 인해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는 과장법(이백의 시 구절 인용)이다.

08 내용의 사실적 이해

범위확장

정답: ④ 화자는 임의 은혜가 물처럼 흘러가 자취가 없어진 것에 대해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맥을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④ '君恩이 물이 되어 흘러가도 자취 업고'는 임의 은혜가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거나 끊어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지, 임에 대한 '배신감'을 공격적으로 토로하는 것이 아니다. 화자는 끝까지 임에 대한 충성을 다짐한다.

[오답 풀이]

- ① '금화성 백옥당의 꿈이조차 향기롭다'에서 확인된다.
- ② '五月飛霜이 눈물로 어리느 듯'에서 자신의 원통함을 비유하고 있다.
- ③ 악인인 도척은 장수하고 의인인 백이는 굶어 죽는 현실을 보며 '못 미들산 조화'라며 회의감을 드러낸다.
- ⑤ '천지만물 상진 뜻을 주공을 꿈에 뵈와 자세히 묻고 싶다'는 대목에서 확인된다.

09 구조적 특징 파악

조건누락

정답: ③ 현실의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과 임에 대한 충절을 다짐하는 부분이 교차하며 반복된다.

[출제의도]

작품의 유기적 구성과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유배지의 참혹한 환경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도(현실 고통), 다시 임을 위해 옷을 짓거나 죽어서 분신이 되겠다는 다짐(충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배 가사의 전형적 구조를 띤다.

[오답 풀이]

- ① 내면 심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를 이루며, 외부 묘사는 심리의 투영일 뿐이다.
- ② 원망과 안타까움은 있으나,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옥황상제 처분'이라며 순응한다.
- ④ 자연물(새, 학 등)에게 말을 건네지만, 이는 고립감을 강조할 뿐 유대감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⑤ 신분은 이미 '유배객'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신분 변화의 연대기적 서술은 없다.

10 인물의 심리 추론

개념혼동

정답: ① 자신의 모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순응

[출제의도]

화자가 설정한 초월적 대상과의 관계와 그에 따른 심리를 추론한다.

[정답 풀이]

- ① '이 몸이 녹아져도 玉皇上帝 處分이요 / 이 몸이 식여져도 玉皇上帝 處分이라'에서 보듯, 화자는 자신의 생사와 처지를 모두 옥황상제(임금)의 처분에 맡기는 철저한 순응과 경외의 태도를 보인다.

[오답 풀이]

- ② 무심함에 대한 서운함은 있으나 '도전 정신'은 작품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 ③ '못 미들산 조화'라며 탄식하지만, 이는 신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한탄이다.
- ④ 확신보다는 막막함과 간절함이 더 크며, '언제 볼고'라는 표현에서 보듯 기약 없는 기다림에 가깝다.
- ⑤ 무력감은 나타나지만, 그것이 '체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절의 지속'으로 이어지므로 순응이 더 적절한 설명이다.

11 시어의 기능적 비교

개념혼동

정답: ② ㉠

[출제의도]

시어의 문맥적 의미와 화자와의 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② ㉠ '넬구름'은 바람에 흩날려 날아 자미궁(임이 계신 곳)에 올라가 화자의 말을 전하고 싶어 하는 매개체이긴 하나, ㉠, ㉡, ㉢, ㉣이 화자가 '죽어서 되고 싶어 하는 분신'인 것과 달리 ㉠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소망을 투영한 일시적 매개체이다. 또한 다른 시어들이 화자의 '변치 않는 충절'이나 '한'을 직접 형상화한 고정적 분신인 데 반해, 구름은 유동적인 성격이 강하다.

[오답 풀이]

㉠, ㉡, ㉢, ㉣은 모두 화자가 죽은 뒤에 변화(환생)하여 임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화자의 분신들이다.

12 구절의 함축적 의미 추론

개념혼동

정답: ①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출제의도]

고사의 함축적 의미를 통해 화자의 상황 인식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① '노주한단(魯酒邯鄲)' 고사와 '진인취월인소(秦人醉越人笑)'를 인용하여, 남의 일로 인해 엉뚱하게 자신이 화를 입게 된 억울한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이는 유배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② 엽보와는 관련이 없는 고사이다.
- ③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는 자신에게 화가 미친 것을 한탄하는 것이다.
- ④ 실수의 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없는 피해에 대한 문제이다.
- ⑤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부당한 연루에 대한 억울함이다.

13 타 작품과의 비교 감상

개념혼동

정답: ⑤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임의 곁에 머물고자 하는 소극적 연모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출제의도]

유사한 주제 의식을 지닌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표현상의 차이와 공통점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⑤ 윗글의 화자는 '어엿븐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가'라며 임이 자신을 알아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 역시 '날인 줄 모르셔도' 꽃겠다고 하지만 이는 임이 몰라주더라도 꽃겠다고 의지하지 정체성을 '숨기려'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윗글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려는 목적이 강하므로 소극적 연모로만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매화 향기나 나비의 향기는 모두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이다.
- ② 두 작품 모두 사후 변신 모티프를 사용한다.
- ③ 윗글은 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며 직접적인 인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보기>보다 인지 욕구가 강하다.
- ④ 윗글은 임이 자신을 반겨줄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을 던지며 기대를 드러낸다.

14 주제의식 파악

유사어혼동

정답: ③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임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연모

[출제의도]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와 화자의 지향점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유배라는 극한 상황과 온갖 모함(청승, 양각풍 등) 속에서도 화자는 임(옥황상제)을 향한 마음을 '백옥'이나 '매화'에 비유하며 끝까지 지키고자 한다.

[오답 풀이]

- ① 자연물은 충절의 매개체일 뿐, 물아일체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 ② 자책의 기미는 보이거나 도덕적 완성이나 수양이 핵심 주제는 아니다.
- ④ 정치 현실에 대한 원망은 크지만, 거기서 벗어나기보다 오히려 임이 계신 '위궐'로 돌아가기를 갈망한다.
- ⑤ 민중의 삶이나 사회 개혁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15 구절의 문맥적 정밀 분석

개념혼동

정답: ③ 올바른 도리가 사라지고 혼란에 빠진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출제의도]

거시적인 비유 표현이 상징하는 시대적·정치적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건곤(하늘과 땅, 즉 국가)'이 병들고 '혼돈(태초의 질서)'이 죽었다는 것은,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당쟁으로 인해 정치적 정의가 사라진 암담한 현실을 거시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화자의 개인적 질병 문제가 아니다.
- ② 실제 자연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비유이다.

-
- ④ 개인적 정서보다는 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우선한다.
 - ⑤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므로 긍정적 수용과는 거리가 멀다.